

인천 청라·검단~서울 강남 M버스 운영

김교홍 의원, 2 노선 신설 밝혀 내년 상반기 운행... 혼잡 해소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검단신도시와 서울 강남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된다.

19일 민주당 김교홍(인천 서구갑)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노선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들 2개 노선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신설되는 노선은 청라6단지~국제금융단지~가정역~고속터미널~강남역~양재역~검암역~독정역 등을 연결한다.

이들 노선의 버스 운행은 사업자 공모, 면허발급, 차량 제작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작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 방면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인해 서구지역 주민들은 M버스 노선 신설을 요청해왔다"며 "노선 신설로 공항철도·광역버스·간선급행버스(BRT) 등 출퇴근길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서구 청라국제도시·검단신도시와 서울 강남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이 신설,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된다. (사진=연합뉴스)

안테나

남동청소년문화의집, 1박 2일 아영체험 진행



남동청소년문화의집 16~17일 만성중학교 임원 청소년들과 함께 도심 속 1박 2일 아영프로그램 '올~나이트'를 진행했다.

만수동에 위치한 남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된 '올~나이트'는 학교를 벗어나 다양한 리더십의 유형을 배우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참된 리더로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와 능동적인 활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활동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의 시간과 더불어 긍정적인 경쟁 관계를 통해 상호발전적인 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었다.

이용찬 관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을 배우며 공감으로 소통하는 긍정적인 청소년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식 기자

인천 특사경 '찾아가는 수사컨설팅' 실시

인천시가 20일부터 군·구 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특별사법경찰 수사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시 특사경이 군·구를 직접 방문해 수사현안,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피의자 신문 방법 등을 전수하는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제고는 물론 시, 군·구간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위한 것이다.

인천시는 최근 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 및 인사발령 등으로 신규지역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기본교육과 더불어 수시교육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수사컨설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6월부터 7월에 걸쳐 진행된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미추홀구·남동구·계양구·서구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분야, 환경 분야, 식품 분야에 대해 총 6회에 걸쳐 실시된다.

안재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최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군·구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해 시·구별 사회질서 이수가 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수사를 실시해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옹진군, 영흥 자율방범대에 순찰차량 전달



옹진군은 19일 옹진군청 파도광장에서 영흥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에는 문경복 옹진군수, 임병삼 영흥 자율방범대장 등이 참석했고, 전달된 순찰차량은 취약지역 순찰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각종 행사 질서유지, 야간 자율방범대 활동 등에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영흥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이 노후화돼 이번 교체 지원하게 됐으며, 교체 차량으로 지역 내에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생활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활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중환 기자

인천사서원,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 나서

인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이 열린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장기요양원지원센터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지역 내 노인장기요양기관이나 시설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 10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장기요양요원들의 다양한 근무 형태에 맞춰 준비했다. 가장 눈에 띄는 강의는 강화지역 노인장기요양 시설 중간관리자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교육'이다. 오는 27일 인천사서원이 운영하는 강화종합재가센터 교육실에서 열린다.

중간관리자 중 감염관리담당을 대상으로 하며 '감염예방 관리' '개인보호구 착용의 실습'과 '실내식물 관리방법' '다육화분 만들기' 등 힐링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다음달 26일에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대면 강의가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역량강화 교육'과 '자기개발 교육' 2개 분야 8개 과목이다. 과목별 정원은 105명이다.

안중삼 기자

남동문화재단 출범 위한 첫발 내디뎈

남동구, 내년 1월 공식출범 발기인대회·창립총회 개최 조직구성 등 안건 심의 의결

52만 남동구민의 생활문화를 담당할 남동문화재단이 공식출범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남동구는 최근 구청 은행나무홀에서 '남동문화재단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재단 이사장인 박종호 남동구청장, 김재열 대표이사 등 남동문화재단 임원 17명이 참석했다.

남동문화재단은 논현동에 위치한 소래아트홀에 사무소를 두고, 1국 4개 팀 27명 규모로 내년 1월 공식출범 예정이다.

구는 창립총회를 통해 재단 설립 허가신청과 등기를 위한 설립취지문과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박종호 남동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일상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라며 "설립발기인 모두가 사명을 갖고 남동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열 대표이사는 "남동구만이 가진 특화된 지역 문화자원과 많은 지역 예술인과의 조화로운 활동과 지원으로, 남동구가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초석을 다지는 데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근식 기자



남동구는 최근 구청 은행나무홀에서 '남동문화재단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사진=남동구청)

'인천 독서대전' 24일부터 열전 돌입

인천 최대 규모의 독서 축제 공공도서관 100주년 기념행사

인천시는 오는 24일부터 10월2일까지 9일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서점·지역 문화공간에서 '2022 인천 독서대전'을 개최한다.

인천 공공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지난 2015년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독서대전' 이후 개최되는 인천 최대 규모의 독서 축제다.

'인천 백년의 향기를 품다'를 주제로 △개막식 △작가와와의 만남 △인천 문화계 인사와 나누는 인천 이야기 △인천 도서관 역사 강연 및 탐방 △작은 도서관&동아리 워크숍 △스텝 투어 △인천 해양철학그림책 전시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 독서대전은 공공도서관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도서관과 시민의 거리를 좁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안중삼 기자

당일 24일 11시 송도 해돋이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개막행사에서는 공식행사와 더불어 도서관·독립서점·독립출판사가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북마켓 부스, 개인참여 텐트채방, 인천 공공도서관 100년 전시, 다양한 독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슬픈 세상의 기쁜 날' 정혜윤 작가 '우리를 만나다' 이경주 작가와의 만남은 25일 배다리 아트스테이1930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오마이뉴스 백창민 기자와 함께하는 '인천 도서관, 그 소중한 역사' 시간에는 인천 도서관과 도서관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통해 도서관 100년의 역사를 살펴볼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강연, 10월2일에는 인천 도서관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탐방이 예정돼 있다.

올해 3월 문 연 아라중학교 개교식 참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명문 학교로 성장 기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 문을 열고 19일 개교식을 가진 인천아라중학교를 찾아 개교를 축하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신중식 교육위원장과 조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다.

인천아라중은 검단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검단신도시 개발로 유입되는 중학생들의 정적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3월1일 개교한 학교로 37학급·도서관·시청각실·강당 등 최신택 건물과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중식 위원장은 "교훈과 같이 큰 꿈을 꾸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장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검단과 인천을 빛내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 최고의 명문 중학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지원 중인 인천 서구가 16일 당하동 청마로 일대를 1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사진=서구청)

청마로 일대 '17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서구 '골목상권 살리기' 앞장 찾아가는 맞춤형 행사로 진행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지원 중인 인천 서구가 16일 당하동 청마로 일대를 1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청마로 골목형상점가는 앞으로 △지역화폐 및 은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인대회 △컨설팅 지원사업 △공동마케팅 △공동환경개선사업 △지역공동체 협업사업 △상인회 역량강화 △국·시·비공모사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구는 서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에서 청마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지난 16일 점포를 비우기 어려운 상인들의 특성에 맞춰

지정서 전달식을 '현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행사'로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시의원, 구의원, 상인회 등이 참여했다.

이지훈 청마로 골목형상점가 상인대표는 "그동안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찾는 상점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구에서도 골목상권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구는 이후 청마로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 찾아가는 상인대학 등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안중삼 기자